※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BEACON
Blue East Asia Collaborative for Ocean Networks

# 동아시아 **5**개 기관, 수산물 지속가능성 협력 네트워크 **'BEACON'** 출범

## 도쿄 '지속가능 수산물 서밋'서 공동 발표…과학·어업 개선·시장·금융 하나로 묶는다

※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바랍니다

**(2026년10월21일, 일본 도쿄)** 동아시아 5개 기관이 역내 수산물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BEACON'(Blue East Asia Collaborative for Ocean Networks)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칭다오 해양보전협회(QMCS),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KSSC), 오션 아웃컴즈(Ocean Outcomes·O2), 디어오션(DearOcean), 씨푸드 레거시(SFL) 등 5개 기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지속가능 수산물 서밋'(The Sustainable Seafood Summit·TSSS)에서 어업·수산물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잇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BEACON의 출범을 발표했다.
바다와 식량 시스템, 어업 종사자가 직면한 복잡하고 서로 얽힌 과제를 풀기 위한 '블루 이스트 아시아'(Blue East Asia)의 비전과 방향이 동아시아 수산물의 중심지에서 등대(beacon)처럼 불을 밝힌 것이다.

BEACON은 과학·어업 및 양식업 개선·수산물 기업·시장·금융을 하나로 묶어 어업과 수산물 시장, 지역사회의 회복력, 해양 건강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BEACON과 그 비전이 갖는 의미는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선다. 동아시아의 생산·무역·일자리·수산물 시장은 세계 식량·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며,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과 생계, 해양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76%, 세계 어업·양식업 부문 직접 고용의 85%를 차지한다. 중국 한 나라만 해도 2024년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일본·미국·한국이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그러나 동아시아 어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거버넌스를 감독하며,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과 산업은 서로 단절된 채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와카오 하나오카(Wakao Hanaoka) 씨푸드 레거시(Seafood Legacy) 설립자 겸 CEO는 “동아시아는 세계 수산물 시스템의 중심이지만, 어업을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국가별·부문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그는 “BEACON은 동아시아 전역의 지속가능성 노력을 하나로 잇기 위해 마련됐다”며 “여러 조직이 모여 협력 방향을 조율하고, 기존 전문성을 토대로 삼으며, 수산물 시스템 전반의 의사결정이 서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EACON은 중국 본토·홍콩·대만·한국·일본에 걸친 역내 파트너십과 프로젝트, 역량을 한데 모은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맞물린 다음 6개 분야의 활동을 추진한다.
▲과학 및 근거: 관련 연구를 종합하고, 우선 해소해야 할 정보 공백을 파악한다.
▲수산물 공급망 및 시장: 조달, 이력추적, 실사(due diligence), 공급업체 참여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기업과 공급망 주체를 연결한다.
▲금융 리스크 및 참여: 금융기관이 어업 관련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도 높은 정보와 지표를 제공한다.
▲어업 및 양식업 개선: 생산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어업·양식 관행을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생태계 접근 기반 어업 거버넌스: 근거와 현장 이행에서 얻은 통찰이 적절한 과학적·지역적 관리 절차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모니터링 및 학습: 공동의 진척 상황을 추적하고, 향후 활동에 참고할 교훈을 도출한다.

왕송린(Songlin Wang) 칭다오 해양보전협회(Qingdao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설립자 겸 회장은 “BEACON은 다른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의 어업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전문성과 관계망을 연결해, 역내 전반에서 과학과 산업 참여, 현장 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맞물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BEACON 측은 어업의 지속가능성은 한 어업이나 한 척의 어선에서 이뤄지는 뛰어난 과학 연구나 개선된 조업 관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개선책은 생산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수산물 구매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뒷받침되고, 관련 관리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생산·시장·금융·과학·거버넌스에 이르는 어업 시스템 전반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BEACON은 바로 이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과학적 근거는 어업의 우선과제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장 개선 작업은 생산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공급망 참여는 시장의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이행 경험은 거버넌스 논의의 밑거름이 되며, 금융기관은 더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업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다.

디어오션(DearOcean) 정우진 대표는 “생산자에게는 개선을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이, 구매자와 금융기관에는 진전을 확인하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더 나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그러면서 “BEACON은 이러한 수요를 연결해 책임 있는 행동과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시장·금융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 수산물 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의 3분의 1 이상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유럽과 북미는 주요 수산물 순수입 지역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생산·무역과 연계된 어업의 지속가능성은 역내를 훨씬 넘어 기업과 소비자, 식품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BEACON의 5개 창립 회원 단체는 각자의 지역에서 고유한 전문성과 탄탄한 관계망을 갖추고 있다. 어업과 수산물 공급망, 관리 과제는 국경을 넘나들지만, 해법이 성공하려면 결국 현지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BEACON은 이 점을 고려해 각 지역의 현장 지식과 역내 협력을 결합하도록 설계됐다.

맨디 웡(Mandy Wong)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ong Kong Sustainable Seafood Coalition) 사무국장은 “역내 협력은 각 지역의 현실에 뿌리내릴 때에만 효과를 낸다”며 “창립 단체마다 서로 다른 관계망과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EACON은 이러한 강점을 연결해, 변화가 필요한 지역사회와 시장, 어업 현장에 발을 딛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정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과학기관, 수산물 기업, 시민사회, 어업공동체의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BEACON은 관련 이해관계자와 근거 자료, 현장 경험을 연결해 기존 절차 안에서 진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켈리 해럴(Kelly Harrell) 오션 아웃컴즈(Ocean Outcomes) 사무총장은 “우리는 동아시아 전역의 단체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며 “역내 차원에서 과학과 현장 경험,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세계 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창립 단체 대표 추가 발언**

**하나오카 와카오(Wakao Hanaoka), 씨푸드 레거시(Seafood Legacy Co., Ltd.) 설립자 겸 CEO**
*“동아시아를 단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시장이나 생산 거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는 세계 어업과 해양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만한 규모와 영향력, 지식, 그리고 책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BEACON은 이를 가능하게 할 역내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국경과 분야를 넘어 사람과 기관을 잇고, 각자의 강점을 맞물리게 하며, 흩어진 노력을 하나로 모아 큰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수산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협력의 시작입니다.”*

**켈리 해럴(Kelly Harrell), 오션 아웃컴즈(Ocean Outcomes) 사무총장**
*“동아시아에 기반을 둔 단체로서 오션 아웃컴즈가 BEACON의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지역의 수산물 시스템은 교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어족자원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앞당기려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어획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진 지금, BEACON은 협력과 혁신, 문제 해결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맨디 웡(Mandy Wong),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ong Kong Sustainable Seafood Coalition) 사무국**

*"수산물 생태계를 바꾸려면 단편적인 노력을 넘어, 시장이 주도하고 시스템 전반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BEACON은 역내 각지의 현장 전문성을 통합해 수산물 공급망 전반의 환경적·사회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 기술과 해양 금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산업계 참여와 기술 지원 활동을 연결하는 이 역내 파트너십을 통해 수산물 시장과 어업, 해양 건강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왕송린(Songlin Wang), 칭다오 해양보전협회(Qingdao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설립자 겸 회장**

*"동아시아는 세계 수산물 생산·소비·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공유하며, 주변 바다와 더 넓은 태평양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 공통된 환경적·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지식과 관계, 실질적인 해법은 여전히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EACON은 이러한 강점을 하나로 모아 중국의 경험을 동아시아 전역의 파트너와 연결하고, 과학·어업 및 양식업 개선·시장·거버넌스를 연계해 더 지속가능한 어업과 더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갑니다."*

**정우진(Woojin Chung), 디어오션(DearOcean) 대표**

*"동아시아 전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BEACON을 만들어가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낮은 인식, 약한 수요, 제한적인 기업측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오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신뢰의 장을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연대하면 각자의 홈그라운드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BEACON 소개**

블루 이스트 아시아 해양 네트워크 협력체(BEACON, Blue East Asia Collaborative for Ocean Networks)는 칭다오 해양보전협회,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 오션 아웃컴즈, 디어오션, 씨푸드 레거시가 공동 설립한 역내 이니셔티브다. 중국 본토·홍콩·대만·한국·일본은 물론 관련 공해(**公海**) 어업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어업 개선·수산물 공급망·시장·금융·거버넌스를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건강한 바다를 위한 조율된 행동을 촉진한다.

**창립 단체 소개**

오션 아웃컴즈(Ocean Outcomes, O2)는 전 세계 어업과 수산물 공급망 개선을 사명으로 하는 기술 파트너다. 어업공동체, 수산물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회복력 있는 어업을 지원하는 실용적 해법을 개발·실행한다.

씨푸드 레거시(Seafood Legacy Co., Ltd.)는 도쿄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으로, 기업·금융기관·정부·시민사회와 협력해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수산물 시장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해양 생태계와 경제, 사회 간의 연결을 상징하는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다음 세대에 유산(레거시)으로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칭다오 해양보전협회(Qingdao Marine Conservation Society, QMCS)는 과학 연구, 대중 및 업계 교육, 정보·지식의 국제 교류를 통해 중국의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수산물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는 중국의 비영리단체다.

디어오션(DearOcean)은 서울에 기반을 둔 해양수산 싱크탱크로, 컨설팅, 지속가능 수산물 연구,

※ 엠바고: *2026*년 *10*월 *21*일(수) *18:00*(한국시간) 이후 보도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세미나 개최를 전문으로 한다.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ong Kong Sustainable Seafood Coalition, HKSSC)**은 수산물 구매자와 판매자로 구성된 업계 주도 연합체로, 조달 지원·역량 강화·업계 참여를 통해 홍콩, 마카오 및 인근 지역 전반에서 책임 있는 수산물 조달과 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언론 문의**


- 한국어: 정우진, 디어오션(DearOcean) 대표, woojin@dearoceans.com
- 영어: 페리 브로데릭(Perry Broderick), 오션 아웃컴즈(Ocean Outcomes)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perry@oceanoutcomes.org
- 일본어: 아리카와 마리코(Mariko Arikawa), 씨푸드 레거시(Seafood Legacy) 커뮤니케이션·브랜딩 최고책임자, mariko.arikawa@seafoodlegacy.com
- 중국어(만다린): 장시위안(Siyuan Zhang), 칭다오 해양보전협회(Qingdao Marine Conservation Society)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itsyuna17@gmail.com
- 광둥어: 맨디 웡(Mandy Wong), 홍콩 지속가능 수산물 연합(Hong Kong Sustainable Seafood Coalition) 사무국, mw@admcf.org